

‘구직 포기’ 석달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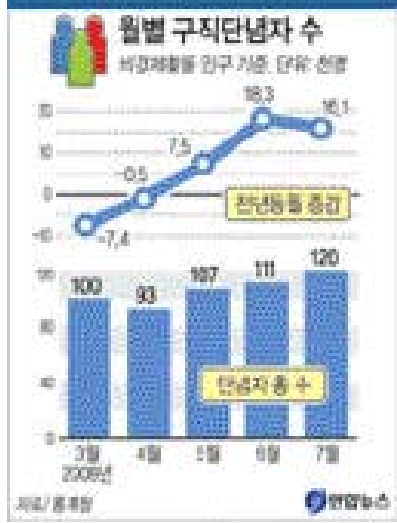
고용시장 ‘한파’ ... 7월 구직 단념자 12만명 달해

최근 일자리 창출 폭이 정부 목표치인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등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2만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5.5%(1만6천100명) 증가했다.

전년 동월대비 구직단념자 수는 지난해 2월 3천명 증가에서 3월 1천300명 감소로 전환한 뒤 올해 4월까지 13개월 동안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5월 7천500명, 6월 1만8천300명, 7월 1만6천100명 등 3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상 실업자는 최근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구직단념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6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천100명 감소해 지난해 3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여자 구직단념자는 7월 현재 5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만7천200명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비 여자 구직단념자 증가폭은 3월 4천100명, 4월 6천200명, 5월 9천800명, 6월 1만9천200명, 7월 1만7천200명 등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보니 경기 침체에 따른 구직단념자 증가세도 여성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고용사정 악화는 남성보다는



현대·기아 수소연료 전지차

현대·기아차는 19일 미국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이 주관하는 수소연료전지차 미디어 토크 행사에 투싼과 스포티지 전지차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23일까지 진행되는 투어 행사 중 워싱턴 DOE 청사 앞에서 현대·기아차 미국 연구소 관계자들이 현지 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기아차 외에 BMW, 폭스바겐, 다펠라, 혼다, 닛산, GM 등 총 8개 업체가 참가했다.

금융당국 ‘주택금융규제 완화’ 반대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 DTI·LTV 현행대로 유지”

금융당국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무서비스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 관련규

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정부에서 아직 LTV 혹은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주택금융 규제완화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며 “DTI와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DTI는 투기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라 집값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기업 5년이상 적자뎀 퇴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지속적인 공시 위반, 횡령·배임에 연루되거나 5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다음달부터는 상장을 위한 소액주주 분산 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19일 발표한 ‘상장·퇴출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지속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 간 이어지면 상장폐지하되 기존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하지 않고 2008 회계연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반복적·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

과실로 공시 의무를 어기면 상장폐지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지 3년 내에 재지정되면 퇴출당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회상장 기준도 강화해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이 발생하며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현행 조건 외에 자기자본 이익률(ROE) 10%(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등의 요건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25억원(코스닥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코스닥 4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은행 지주사 전환 국민연금 찬성 의결

국민은행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9일 김선정 본부장 주재로 투자위원회를 열고 25일 예정된 국민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금융지주회사 전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은행 주식의 5.02%(9천630억원)를 보유해 단일 주주로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투자위원회는 “국민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회사 간 정보 공유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인당 카드 3.78장

한국 ‘카드 대국’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신용·직불카드 발급장수는 3.78장으로 프랑스·독일 등의 국가보다 2~3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우리나라 국민은 결제성예금을, 미국인들은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주요국의 지

결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9천200만장, 직불·체크카드는 9천만장으로 전체 결제카드가 1억8천300만장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카드수는 신용카드가 1.91장, 직불·체크카드가 1.87장으로 총 3.78장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카드 발급장수는 ‘카드 대국’인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해당한다.

미국의 카드 발급장수는 15억8천900만장이며 1인당 카드 수는 5.30장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 사장 김쌍수씨 내정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김쌍수(63) LG전자 고문이 내정됐다. 한전은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 고문을 사장으로 공석 선 임할 예정이다.

김 고문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LG전자 사장을 거쳐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광역시 남구 남문로14길 11)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2008 가을 부동산 시장 해자문

부동산 시장 동향, 투자 전략, 대출 정보 등 상세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전문 상담 서비스, 무료 상담 전화: 1588-7557, 02-515-7000